



부정은 참을 수 있지만 무관심은 못참아

오재호/한국부부문화연구원장, KBS-2R “밤을 잊은 그대에게” MC

지 난 정월 둘째주 월요일 가정법원 재판장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. 물론 두 사람은 남—남이 되고 말았습니다. 이 재판은 장장 6개월을 끌어온 사건입니다. 원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.

“혼인생활 18년 동안에 우리는 단 한번의 외출도 외식도 한 일이 없습니다. 제 말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? 물론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따윈 잊은 지 벌써 오래입니다. 법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저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.”

정확하게 말해서 최근의 이혼 동향은 엄청 바뀌었습니다.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은 부쩍 줄어들고 있는 반면 배우자의 무관심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.

이런 흐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

첫째, 여성들의 사고 방식이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위치가 위축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.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자는 변하고 있는데 남자는 아직도 단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.

어쨌든 전통적으로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고 사는 게 행복하다는 이론은 무너졌습니다. 실제로 아내를 지칭하던 땅값은 올랐지만 남편을 지칭하던 하늘 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. 괜히 남자 한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.

둘째, 보다 적극적인 성생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이혼 사건은 80% 이상이 여성 쪽에서 제기합니다. 게다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

전체의 65%에 달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혼사유의 절대적인 이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거론되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. 쉽게 말해서 부정행위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.

만일 당신이 바람을 피우면 나도 맞바람 정도는 피울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. 그러나

당신이 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잊었을 때 용서할 수 없습니다. <서울가정법원연

보>에 의하면 남편의 무관심 때문

에 이혼한 가정은 전체의 49%가

넘는다고 합니다. 그 대신 배우

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율은

30%이하로 푹 떨어지고 있습니

다. 이젠 무시당하면서 살지 않

겠다는 것입니다. 즉 나를 사랑한다

면 보다 구체적인 관심을 나타내라는 주

장입니다. 그렇습니다. 사랑은 관심입니다. 사랑

하면 사랑한다고 티를 내야 합니다 내가 구체적으

로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

추측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. 사랑의 티를 나타내

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? 그런 의미에

서 혼인의 바탕은 사랑이 아니라 대화라고 말합니

다. 즉 사랑하고 있다면 분명히 나는 당신을 사랑

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. 대화란 마음속에

있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첫 번째 사건이기

때문입니다. 처방은 오직 하나 뿐입니다. 남편 여

러분! 아내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만은 절대로 잊

지 마십시오.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

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

기회이기 때문입니다.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

<당신을 사랑합니다> 라는 바로 그 말이 가장 중

요하다는 말입니다. **2001.12.10**

